9월 25일(월) / 시59-62편

▶**내용요약**: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위기에 처하여 그의 대적을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한다. 60편은 민족적인 애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와 소망이 담겨있다. 61편은 다윗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자신을 보호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62편은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질문**: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 달게 한 깃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60편)

▶**생각하기**: 다윗은 61편에서 여러 대적의 위협을 당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60:11)고 고백하고 이어 62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가 되심을 고백한다. 다윗이 고통당할 때 그의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피난처요 요새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서인들이 되자!

9월 26일(화) / 시63-66편

▶**내용요약**: 63편은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소망과 찬양할 이유를 기술한다. 64편은 다윗이 근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악인들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결과를 찬양한다. 65편은 영혼 구원과 물질적인 부함에 대한 감사로 구성된다. 66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엄위한 일들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할 것을 호소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 )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63편)

▶**생각하기**: 66편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놀랍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66:16)고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호소한다. 이는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개별적이지만 신앙의 성장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공동체**임을 기억하자.

9월 27일(수) / 시67-70편

▶**내용요약**: 67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열방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 노래한다. 68편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일을 찬양한다. 69편은 시인이 고난과 조롱을 당하며 응답을 간구하고 이어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기록한다. 70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인의 갈급함이 표현된다.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실 것을 요청한다.

▶**질문:**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어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는가?(68편)

▶**생각하기**: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68:5)고 노래한다. 다윗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로 고아와 과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 아닐까? 결국 고독한 인생 가운데 평생 동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

9월 28일(목) / 시71-74편

▶**내용요약**: 71편에서 시인은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72편은 왕의 판단력과 공의을 찬양하는 시로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메시아를 기대하게 한다.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74편은 대적의 침입으로 성소가 파괴된 비참한 상황에서 원수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질문**: 73편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면서 그들의 목걸이는 무엇이라고 하는가?(73편)

▶**생각하기**: 시인은 시편 73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처음에는 부러워하고 시기했지만 사실 그들은 멸망이 예언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와 달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초라하고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73:28)**고 외치게 된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9월 29일(금) / 시75-78편

▶**내용요약**: 75편은 오만한 자를 책망하며 악인들이 마실 잔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다. 76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며 영화와 존귀를 받으실 분임을 찬양한다. 77편은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인이 고민하던 중에 과거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를 얻는다. 78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한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것을 권면한다.

▶**질문**: 시인은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오직 어떤 지파만을 선택하셨다고 말하는가?(78편)

▶**생각하기**: 시인은 77편에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77:11)고 한다.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과거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세어보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9월 30일(토) / 시79-82편

▶**내용요약**: 79편은 이방 나라들이 약탈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속히 도우시도록 위해 기도한다. 80편은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에서 번성케 한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한다. 81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한다. 82편에서 시인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 )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80편)

▶**생각하기**: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80:14). 목자되신 하나님이 은혜주실 때 이스라엘은 이를 거절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겨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은혜주실 때 순종하자!!!**

10월 1일(주일) / 시83-86편

▶**내용요약**: 8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던 역사를 나열하면서 지금도 계속 도와주실 것을 기도한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존자임을 드러낸다. 84편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곳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를 기쁨으로 노래한다. 시인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가 계시는 성전을 통해 간절히 묘사된다. 85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신앙고백의 시이다. 이스라엘이 과거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해 좋은 것을 주시며 구원하신다는 점을 노래한다. 86편은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을 인자하고 긍휼하신 존재로 묘사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질문**: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가?(84편)

▶**생각하기**: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기도하기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86:17)라고 한다. 다윗의 대적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은총의 표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의 표적을 가졌는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해주는 **은총의 표적**을 가졌는지 확인해보자!!!